

편집 및 발행인 : 장영태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총괄 : 최나영환 감수 : 길광수 전화번호 : 051-797-4770 · E-mail : chnayoung@kmi.re.kr / kdong@kmi.re.kr

Contents

● 국제물류 통계

- 인트라 아시아 '컨' 해상물동량, 꾸준한 증가세 지속 ... COSCO, 선복량 1위 유지

● 국제물류 투자 동향

- 우버플레이트, 물류사업 확대 위해 트랜스플레이스 인수

● 국제물류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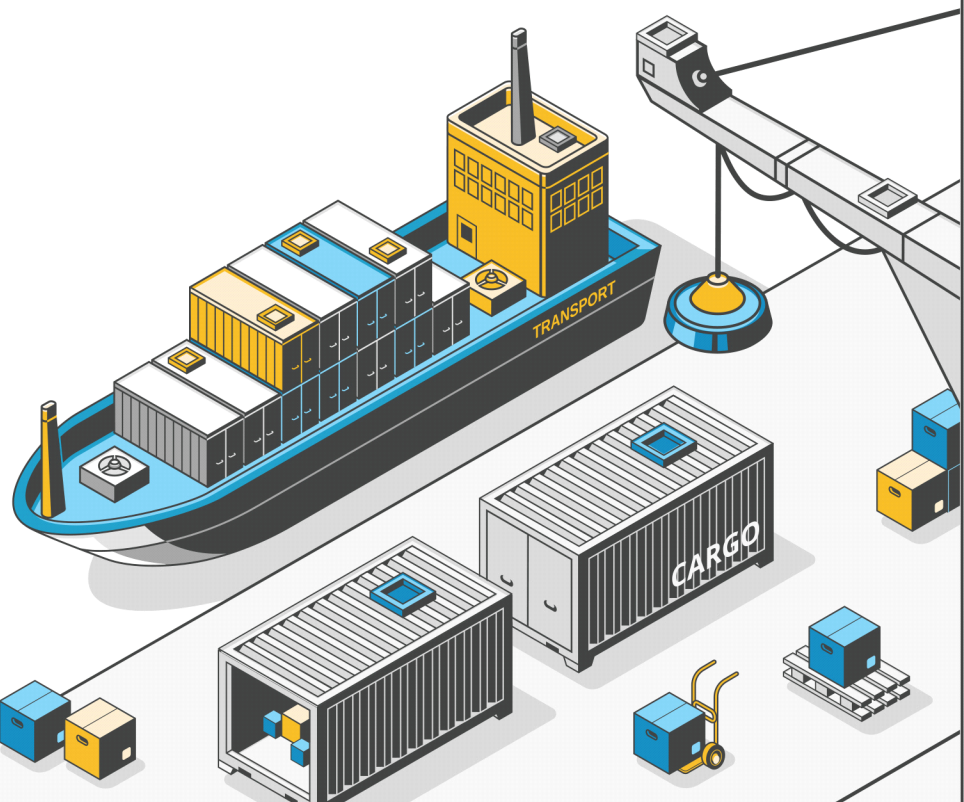
- 미국, 수입 급증으로 병목현상 지속 ... 창고 확보 경쟁 심화
- DHL, 코로나19 관련 연구결과 발표
- 인도 '컨' 항만의 생산성지수 향상

● 국제물류 연구동향

- 항만물류 디지털화 전략에 관한 연구

● 공지사항

- 2021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인트라 아시아 '컨' 해상물동량, 꾸준한 증가세 지속 ... COSCO, 선복량 1위 유지

▶ 인트라 아시아 항로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글로벌 '컨' 해운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규모가 크게 늘어남

- 인트라 아시아 항로의 '컨' 물동량은 2010년 15.5%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2019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결과, 지난해 약 6천만 TEU를 달성함
- 지난해 글로벌 '컨' 물동량은 약 1.1% 감소했으나 인트라 아시아 항로의 물동량 감소율이 0.2%임을 고려해 볼 때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았으며,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 또한 지난해 기준 약 30%로 2010년 (24.7%) 대비 증가함

인트라 아시아 항로 '컨' 물동량 변화(2009-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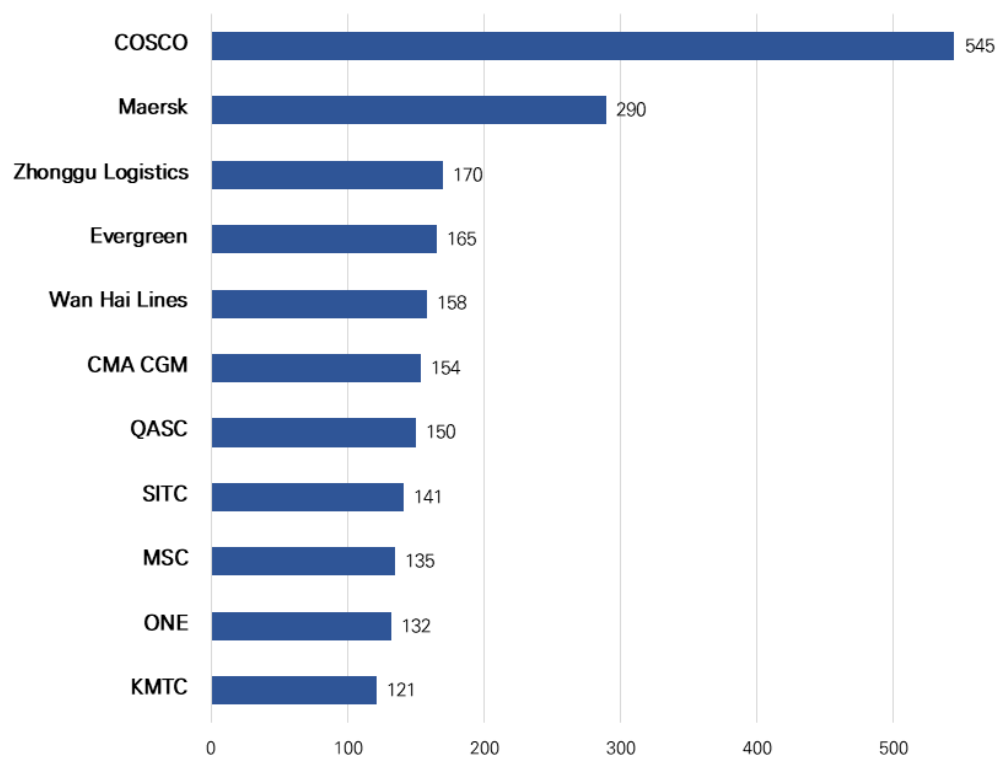
자료 : APEC, APEC Port Development Report, 2020.

▶ 지난해 기준 글로벌 상위 20개 선사 가운데 COSCO가 인트라 아시아 항로에 약 55만 TEU에 달하는 가장 많은 선복량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상위 20개 선사의 선복량 중 인트라 아시아 항로 투입 비중은 지난해 11.6%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으며, COSCO 그룹이 1위를 차지함
- COSCO(55만 TEU)에 이어 Maersk(29만 TEU), Zhonggu Logistics(17만 TEU), Evergreen(16.5만 TEU) 순으로 이어졌으며, 향후 인트라 아시아 항로의 물동량 증가에 따라 해당 항로의 선복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선사별 인트라 아시아 항로 선복량(2020년 기준)

(단위 :천 TEU)



자료 : APEC, APEC Port Development Report, 2020.

참고자료 : APEC, APEC Port Development Report, 2020.

우버플레이트, 물류사업 확대 위해 트랜스플레이스 인수

- Transplace는 미국의 운송 관리 서비스 공급 업체 중 하나임
 - Transplace는 110억 달러 이상의 FUM(Freight Under Management)과 62,000명 정도의 사용자를 보유한 관리형 운송 물류 네트워크 기업임
 - 북미의 운송 서비스를 견인하고 있으며, 기술 기반 솔루션 플랫폼을 통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Uber Freight는 Transplace를 인수함으로써 물류사업을 확대하고자 함
 - Uber Freight의 Transplace 인수 비용은 약 22억 5,000만 달러 규모임
- 이번 인수를 통해 화주에게 효율성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플랫폼 공급을 기대함
 - Uber Freight의 Lior Ron 책임자는 두 회사가 제공하는 최고의 기술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탄력적 플랫폼을 통해 우버 플레이트 뿐만 아니라 물류 생태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 고 인수 기대감을 표함
 - Transplace의 Frank McGuigan CEO는 본 인수를 통해 세계 최고의 화주 네트워크 플랫폼과 최대의 혁신적인 공급 플랫폼의 결합으로 화주들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함

TRANSPLACE 본사 전경



자료 : <https://www.transplace.com>, (검색일 : 2021.08.03.)

참고자료: <https://www.joc.com/>, <https://www.transplace.com/> (2021.08.03.)

미국, 수입 급증으로 병목현상 지속 ... 창고 확보 경쟁 심화

▶ 전자상거래 및 아시아에서 미국으로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미 서부 해안이 혼잡을 겪고 있음

- PIERs에 따르면 미 서부 항만은 2021년 5개월 동안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동량의 61.8%인 490만 TEU를 처리했고, LA·LB는 아시아 수입 물동량 중 2021년 5월 기준 전년대비 60.1% 증가한 842,524TEU를 처리함
- 남부 캘리포니아 해운 거래소(Marine Exchange of Southern California)에 따르면 7월 27일 LA-LB 터미널에 정박하기 위해 26척의 컨테이너선이 대기함

▶ 서부 해안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중서부 화물 허브가 병목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철도 운송이 제한되고 있음

- 수입 급증으로 인해 항만에서 내륙으로의 물동량 증가와 더불어 철도 노동자 및 장비의 부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음
- 북미 복합 운송 협회(Intermodal Association of North America)에 따르면 LA-LB에서 출발하는 철도운송 물동량 중 대부분이 시카고로 향하며 줄리엣(Joliet) 터미널에서 하차함
- 서부해안에서 내륙으로 향하는 주요 철도 운송회사인 유니언 퍼시픽(Union Pacific)은 시카고를 비롯한 내륙 복합 터미널의 화물 정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7월18일부터 일주일간 서부지역 항만에서 중서부 물류 허브로 향하는 철송을 중단했고 벨링톤노던산타페 철도(BNSF Railway)는 18일부터 2주간 운송을 제한함
- 일부 포워딩 회사는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와 캔자스시티 또는 테네시 주 멤피스로 우회하고 있음
- 철도 운송 제한에 따라서 트럭 운임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JOC 분석에 따르면 LA에서 시카고로 향하는 트럭운임은 6월 기준 마일당 2.90달러로 월간 0.19달러 상승했으며 7월에는 2.99달러로 상승할 전망이다

▶ 미 서부뿐만 아니라 남부 항만도 최대 물량을 기록 중임

- LA항의 Eugene Seroka 이사에 따르면 6월 기준 컨테이너 터미널의 체류 시간이 5일에 달하며 레일 도크에 체류하는 기간은 여전히 12일 수준임
- 사우스캐롤라이나 항만청(South Carolina Ports Authority)에 따르면 완도 웰치 터미널, 노스 찰스턴 터미널 및 휴 K. 레더맨(Hugh K. Leatherman Sr.) 터미널에서 전년대비 9.6% 증가한 255만 TEU를 처리함
- 찰스턴항은 6월 기준 2019년 대비 13.8%, 2020년 대비 44.5% 증가한 128,622TEU를 처리함

▶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미국 내 수입물량은 8월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항만과 내륙의 물류 정체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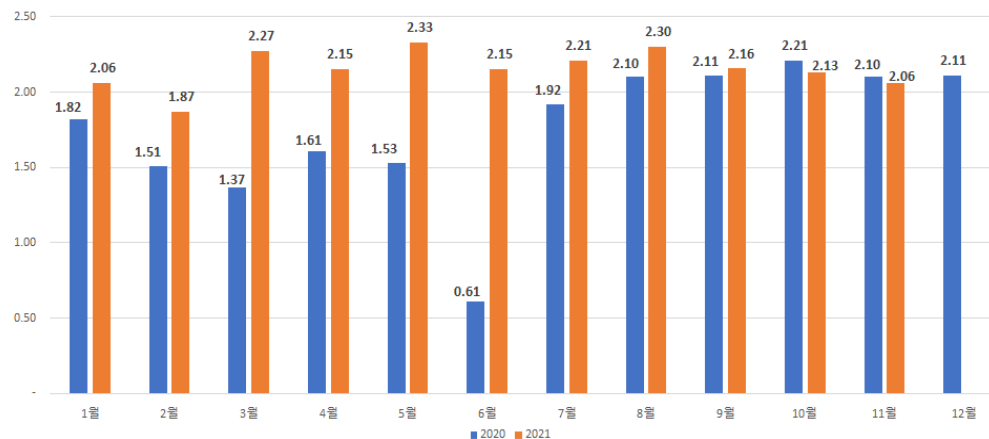
- 미국의 장난감 제조업체 Hasbro는 해상운송의 어려움을 고려해 여러 공급처에서 상품을 더 일찍 주문하고 사용하는 컨테이너 선사의 수를 늘리고 과거보다 더 많은 항만을 통해 상품을 운송하고 있음
- LA항은 8월 첫 주에 수입 물량이 76% 이상 증가해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미국소매연맹(National Retail Federation)에 따르면 9월까지 전년 대비 수입 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 미국 부동산 회사 CBRE 또한 전자상거래는 2025년까지 미국 전체 소매 판매의 26%를 차지할 것이며 이는

창고 공급에 더 많은 부담을 가할 것으로 예측함

- CBRE의 James Breeze 산업 및 물류연구부문 수석 이사는 물류기업, 소매업체 및 도매업체는 상품을 더 빠르게 배송하고 운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역 허브 창고를 더 많이 추가하고 있다고 전함
- 쿨네앤드나겔의 Detlef Trefzger CEO는 항만 혼잡과 비효율로 인해 발생한 병목현상과 수요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미국 항만 수입 물동량

(단위 :백만 TEU)



자료: NRF/Hackett Associates Global Port Tracker

주 : 2021년 6월은 추정, 2021년 7월 이후는 예측 자료임

▶ 전자상거래 수요의 급증으로 소매업체와 물류기업이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 제품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 확보 경쟁을 하고 있음

- 항만과 도시 인근의 물류 공간과 대형 온라인 주문 처리 작업에 필요한 대형 창고의 경우 가격이 특히 높은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
- CBRE Group Inc.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산업용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9.7% 상승함
- 2021년도 1분기 기준 뉴저지 북부의 산업용 부지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하였고 남부 캘리포니아의 인랜드 엠파이어(Inland Empire)는 24.1% 상승함
- 50만 평방피트 이상의 대형 창고에 대한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13.2% 상승함
-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인 Treetop Development의 공동 창립자 Azi Mandel씨는 "Amazon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창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화장지와 같은 생필품을 배송받기 위해 더 많은 창고 공간이 필요하다"고 전함

●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주요 항만인 로스앤젤레스(LA)·롱비치 항만 인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DHL은 남부 캘리포니아 항만 인근의 고객을 위해 1천만 평방피트(약 92만㎡) 이상의 산업공간을 점유하고 있음
- DHL Supply Chain의 Carl DeLuca 미주 부동산 책임자에 따르면 창고 부지 확보 경쟁이 심화되기 이전에는 3~5년 사이의 기간으로 임대 계약을 했지만, 최근 남부 캘리포니아 항만 주변 지역의 임차인은 상승한 임대료율로 7~10년 사이의 임대를 요구받고 있음
- CBRE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서부 부동산 시장에서 2021년 2분기에 5,220만 평방피트의 산업용 부지가 임대되었고 이 중 70.2%는 신규 임대되었으며, 9,520만 평방피트의 산업용 부지가 건설 중이고 이 중 44.7%는 이미 임대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창고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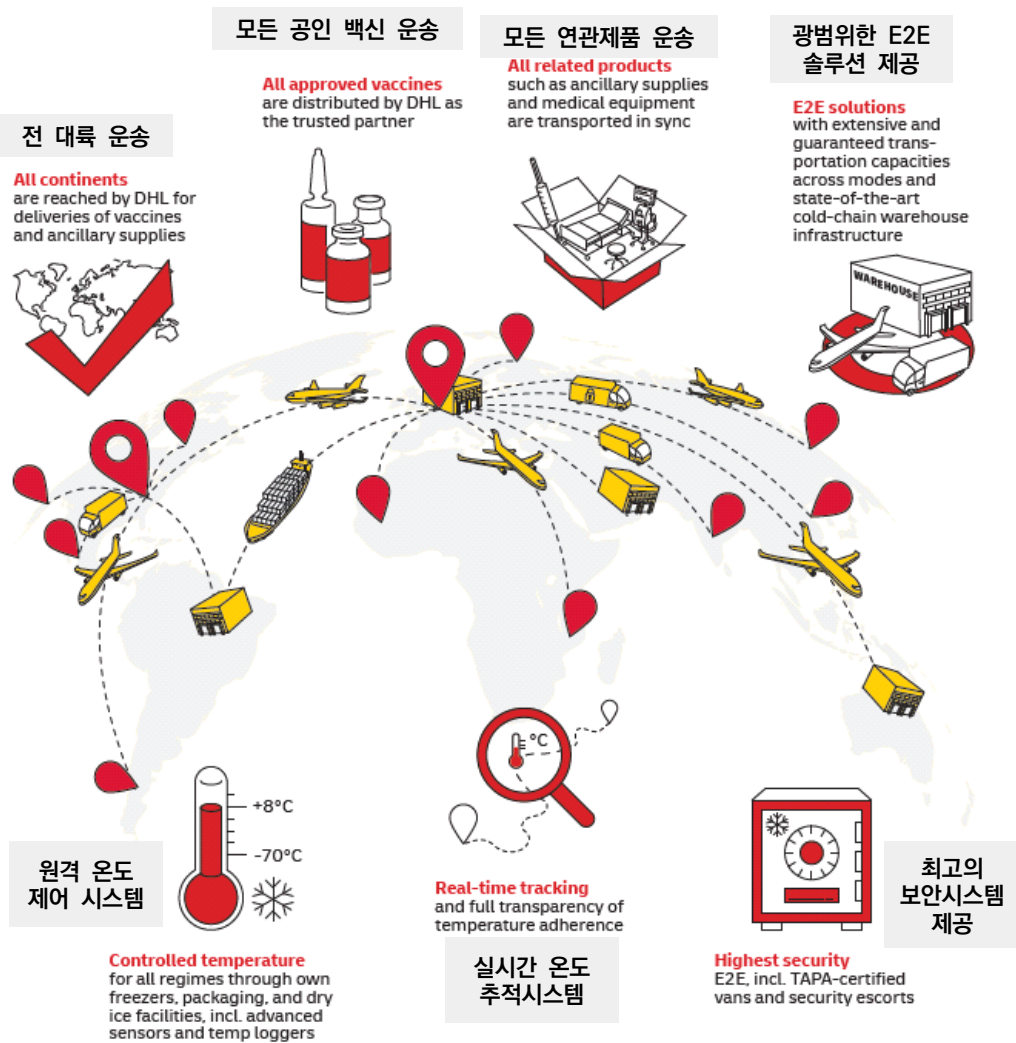
DHL, 코로나19 관련 연구결과 발표

- DHL이 코로나19에 대한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회복력에 대한 재조명(Revisiting Pandemic Resilience)’ 보고서를 발표함

- 본 보고서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통해 물류업계의 중요한 역할과 1년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공중 보건 위기 상황 추가 발생 때 ‘글로벌 의료 공급망(Global Healthcare Supply Chain)’ 대처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전 세계 공중 보건의 위기 속에서 물류산업은 백신, 진단 키트, 의료 보조기구, 치료제, 개인 보호 장비 등 코로나19 관련 물품을 수송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DHL은 제약 및 공공 부문 50건 이상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전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2억 도스(doses) 이상의 백신을 세계 120여 개국에 배포함

- 코로나19 초기부터 의약품 물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350여 개 이상의 DHL 시설과 9,000여 편에 달하는 항공편으로 운송함
- 본 보고서에서 DHL은 크게 7가지 분야(①전 대륙 운송, ②모든 공인 백신 운송, ③모든 연관제품 운송, ④광범위한 E2E 솔루션 제공, ⑤원격 온도 제어 시스템 제공, ⑥실시간 온도추적 시스템 제공, ⑦최고의 보안시스템 제공)에 기여했다고 발표함
- DHL의 카차 부쉬(Katja Busch) 최고상업책임자(CCO, Chief Commercial Officer)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물류 공급망 관리·유지, 의약품 운송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였으며 전 세계와 전 산업이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며 팬데믹 종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파트너십과 데이터 분석”이라고 전함
- DHL을 비롯해 UPS 등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초기의 의약품 물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콜드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음
-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 진출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확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국내 물류기업의 투자와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함

COVID-19 백신 운송 관련 DHL의 기여도



자료: DHL, *Revisiting Pandemic Resilience*, 2021, p.1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참고자료: <https://www.dhl.com/pandemic-resilience> (검색일 : 2021. 8. 2.)

인도 '컨' 항만의 생산성지수 향상

- ▶ JOC(Journal Of Commerce)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항만의 생산성지수가 인도에서는 지난 6월부터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 인도에서 가장 분주한 JNPT(Jawaharlal Nehru Port Trust)의 수출화물 평균 체류 시간은 지난 5월의 3.4일에서 6월에는 3.32일로 개선됐음
- ▶ 아울러 인도 남부 Chennai 항만의 국제터미널(CITPL, Chennai International Terminals)에서도 수출화물 평균 체류시간이 지난 5월의 4.64일에서 6월에는 평균 3.74로 줄어들었으며, Chennai 컨테이너 터미널(CCTPL, Chennai Container Terminal)도 체류시간이 4.54일에서 4.17일로 감소했음
- ▶ 수입화물의 평균 체류시간도 감소했는데, JNPT를 제외하고는 일부 격리된 지점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곳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
 - CITPL은 지난 5월 3.78일에서 6월에는 1.96일로 감소했으며, CCTPL은 3.06일에서 2.67일로, Cochin은 5.2일에서 4.46일로 각각 줄어들었으나 JNPT는 0.81에서 0.85일로 소폭 증가했음

Chennai 항에서 화물을 선적하는 컨테이너선



자료: <https://www.joc.com/node/368029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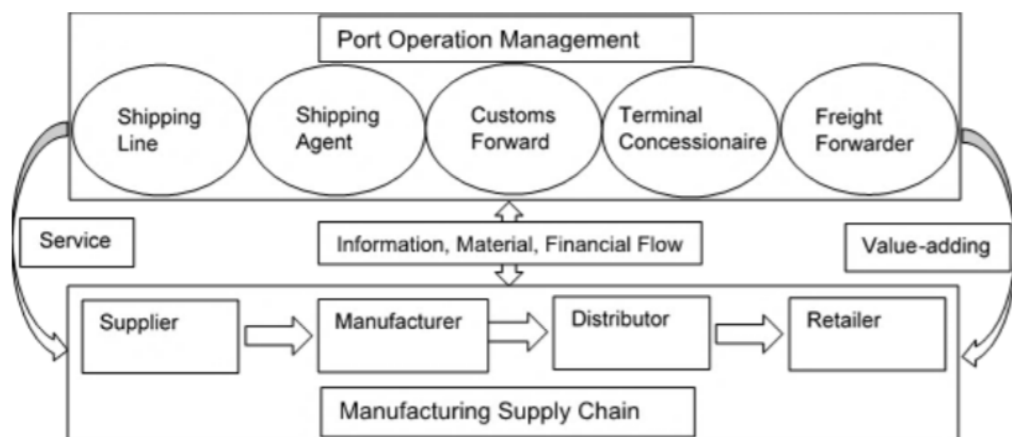
- 화물의 수요는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선복량도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화주의 화물 운반 계획과 운송업체 간 적하 계획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이루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음
- 뭄바이에 본사를 둔 디지털 물류주선업체 Shipwaves의 Sajid Mohammed 최고운영자(COO)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일시적으로 컨테이너 적체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급등하는 해상운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했음

항만물류 디지털화 전략에 관한 연구

무엇을 왜 연구했는가?

- ▶ 지난 수십 년 동안 항만은 전통적인 지역 관문에서 공급사슬 및 물류 활동의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이 변모하고 있으며 세계화 및 디지털화의 영향이 증가하는 동안 디지털화는 항만물류의 핵심 전략 용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
- ▶ 하지만 항만 내 전략적 결정은 공급사슬 내 관계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항만·해운의 공급사슬관리, 공급사슬통합 등의 개념을 공급사슬의 디지털화와 함께 통합하는 연구는 부족함
- ▶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학문적 부진을 해소하고 거스를 수 없는 항만물류의 디지털화 추세를 고려해 공급사슬 힘의 비대칭이 항만 물류의 디지털화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음

항만공급사슬의 개념도



자료: 해당논문 p.462.

무엇을 발견했는가?

- ▶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협력적 연결로로서 항만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했음
- ▶ 정보의 가용성과 관련해 항만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항만물류의 디지털화 전략 목표는 공급사슬과 함께 일관된 정보 교환의 생성을 기반으로 해야 함

- ▶ 항만 공급사슬 구성원의 협력적 태도는 공급사슬에 균형 잡힌 힘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공급사슬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개발이 필요함
- ▶ 공급사슬 구성원에 대한 힘의 비대칭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구성원 간 일관되지 않은 정보공유는 전체 공급사슬의 디지털화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연구결과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 ▶ 항만물류의 디지털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상력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고객 중심의 공급사슬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함
- ▶ 본 연구에서는 공급사슬 구성원 간 힘의 비대칭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부족했으나 항만물류에서 구성원 간 힘의 개념과 항만물류 디지털화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음

자료: Brinker, J., & Haasis, H. D. (2020). "The impact of an asymmetric allocation of power on the digitalization strategy of port logistics", *In Data Science in Maritime and City Logistics: Data-driven Solutions for Logistics and Sustainability*. Proceedings of the Hamburg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ogistics (HICL), Vol. 30 (pp. 457-484). Berlin: epubli GmbH.

2021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5차)

〈2021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시장 진출 활성화와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장려함으로써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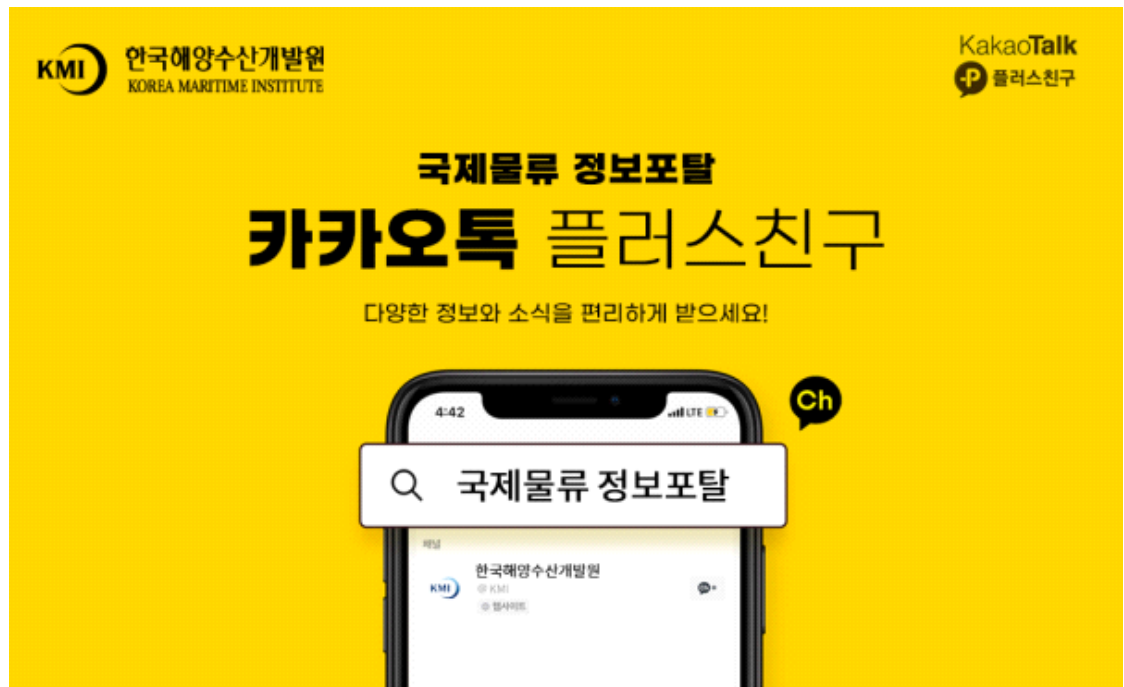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1. 모집기간 : 2021년 7월 21일(수) 09:00 ~ 8월 18일(수) 18:00 까지
2. 대상사업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및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
3. 제출방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제물류정보포털(withlogis.co.kr)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
4.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최나영환 센터장(051-797-4770, chnayoung@kmi.re.kr)
 - 김동환 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 2021년도 1~4차 모집 선정기업 5차 모집 자원가능(당해 연도 단일 기업 최대 2건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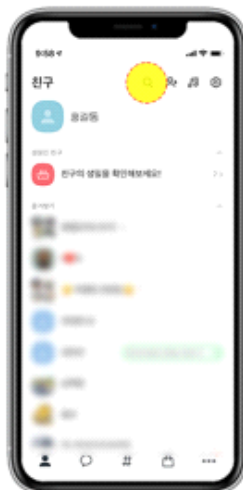
※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21.07.21~)

- 유튜브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zU7uOfuXJVd9VeJPk0IAeg>)을 통해 실시



-P-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